



라식(LASIK)근시교정술

박영순/윤호병원 안과원장

시력이 나빠서 불편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사람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다. 지난 겨울 방학을 맞은 학생이나 휴가를 얻은 직장인들은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이용,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중 하나가 시력교정술이다.

두꺼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부작용 때문에 신물이 난 사람들에게는 귀가 번쩍뜨이는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눈이 많이 나쁜 사람은 안경이 너무 두꺼워서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안경을 낀 사람도 볼체가 작게 보여 답답함을 느끼며 안경 쓰기를 싫어한다.

또한 콘택트렌즈를 끼면 보통 5년 정도가 지나면 부작용이 생겨 아프고 충혈되고 뻑뻑한 증상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여러가지 활동에 불편함이 많아 수술로 시력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안과 분야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근시교정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근시교정술에는 엑시머레이저수술(PRK)수술과 라식수술(LASIK) 두 가지가 있다.

몇년 전에는 엑시머레이저 수술이 첨단수술이라고 각광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라식(LASIK)근시교정술이 엑시머레이저 수술보다 더 나은 수술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라식근시교정술은 특히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레이저를 이용한 근시교정술이 국내 안과에 도입된 지는 10년이 됐다.

레이저광선으로 검은자를 얇게 깎아내는 방법으로 근시를 교정하는 이 기술은 레이저장비의 성능이 갈수록 개선됨에 따라 고도근시와 난시, 원시를 바로잡는 수준까지 발달했다.

라식근시교정술은 기존의 엑시머레이저 방식과 여러가지면에서 더 나은 획기적인 수술법이다.

기존의 엑시머레이저 방식으로는 수술 후 2~3일 동안 안대를 해야 하며, 수술 후 1개월에 걸쳐 서서히 시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다.

하지만 라식수술은 점안 마취약으로 눈을 국소 마취한 후 시술하며,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고 -15디옵터 이하의 고도근시까지 교정할 수 있다. 수술 후 입원이 필요없고,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시교정수술들은 모두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엑시머레이저(PRK)수술은 검은자 상피만 벗겨낸 다음 레이저를 조사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것이고 경도의 근시, 난시에서 더 안정된 결과를 가져오고, 라식(LASIK)수술은 검은자를 얇게 벗겨 놓고 레이저로 시력을 정확히 교정한 후 벗겨 놓은 검은자를 다시 덮어주는 방법으로 중등도, 고도근시에 효과가 좋다.

요즘은 엑시머레이저 수술보다 라식수술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통증이 거의 없고 수술직후부터 시력이 좋아져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식수술은 각막질삭기로 검은자를 얇게 벗겨낼 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기술이 중요하다.

시력의 변화가 없는 20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고 수술 전 각막만곡도, 안압검사, 안저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어야 수술이 가능하다.

라식(LASIK)술은 미세각막절제술과 엑시머레이저수술의 장점만을 따온 최신 방법이다.

수술 중,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으며, 수술 후 다음날부터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

수술 결과는 보통 0.7~0.8까지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1.0까지 회복되기도 하지만, 드문 경우 쉽게 생각해서 안경을 썼을 때의 교정시력보다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보면 된다.

교정시력이 1.0인 고도근시 환자가 라식술을 받은 후 나안시력이 0.8밖에 안나왔다고 수술 결과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다.

라식수술 후 시력개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하는 안과의사의 숙련도이다.

오랫동안 많은 수술경험이 있는 의사가 수술을 해야 수술 결과가 좋다.

둘째로는 환자 자신의 수술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높으나에 따라 수술 후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나는 꼭 1.0 아니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술 결과는 개인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다.

수술전에 눈이 덜 나빴던 사람들이 많이 나빴던 사람에 비해서 결과가 좋다.

그러나 시력이 덜 나온 경우에도 3~6개월정도 충분히 지나서 추가로 더 올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내지 말고 서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식수술의 결과를 너무 환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수술 후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눈이 덜 나쁜 사람들보다 눈이 심한 고도근시일 수록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식수술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다. 100명에 1~2명 정도로 부정난시(안경으로 시력이 교정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각막혼탁이나 야간에 눈부심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아무나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성장이 끝난 20세 이상의 성인중에서 다른 안질환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이전에 사용하던 근시교정술을 보면 방사상 각막절제술은 초창기에 사용한 고도근시치료법으로 다이아몬드 칼로 검은자를 방사상으로 여덟 개방향으로 절개하여 검은자를 퍼주는 수술이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

미세 각막절제술(Keratomileusis)은 검은자 뚜껑을 연 후 한꺼풀을 벗겨내고 다시 덮어 준다.

방사상 각막절개술보다는 발전된 방법이지만 역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시력교정술 후 최고의 만족도를 가지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시력교정수술을 받고나서 꼭 1.0, 1.2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

물론 1.0, 1.2가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 이하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즉,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말라.

●오랫동안 많은 시술 경험이 있는 의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정교한 레이저로 시술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